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I : 첫자녀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응

Transition to Parenthood I :
Couple's Dyadic Adjustment during the First Child Pregnancy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과정 고 선 주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부교수 옥 선 화

Dept.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Seon Ju Koh
Dept.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Sun Wha Ok

〈 목 차 〉

I. 문제제기	IV. 조사방법 및 절차
II. 관련연구 고찰	V. 결과 및 해석
III. 연구문제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Especially, It tries to examine Couple's Dyadic Adjustment during the first child pregnancy.

For this purpose, the empirical sample testing was condu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S. The sample size analyzed in this study was 98 coupl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first child pregnancy has not an effect on couple's dyadic adjustment during the first child pregnancy.
- 2) The role preparation to the parenthood has an effect on dyadic adjustment during the first child pregnancy.
- 3) Wife's employment has effect on husband's dyadic adjustment during the first child pregnancy.

I. 문제제기

모든 개인은 일생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역할과 지위를 수행하게 되어있고,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공통의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일생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를 미리 예측해 보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도 일생을 통하여 겪게되는 각 역할의 전이는 완전히 주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에 의해서 성취되는 자아주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생역할의 시기와 본질은 개인적 선택과 유용한 선택범위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수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Neugarten & Hagestad , 1976).

두 남녀의 결합으로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생성된다고 볼 때, 첫자녀의 출생은 결혼후 맞는 첫번째의 역할전이라는 점에서 가족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될 것이다. 즉, 자녀를 출산한 가족에 전혀 낯설은 새로운 구성원이 출현함으로써 해서 한 개인이 맺어야 하는 관계가 갑자기 다양해진다. 또한 부부는 지금까지 배우자 역할만을 수행하던 것외에 부모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므로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빠른 시일내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며, 새로 출현한 가족원인 유아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이다.

Belsky와 Rovine(1984)은 이러한 부모기로의 전이가 다음의 세가지 이유에서 스트레스를 준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기는 많은 여성에게 육체적으로 취약한 기간이 되기 쉽다. 둘째, 새로운 아기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자녀양육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셋째, 이로 인한 발달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요하는 인지적, 행동적 기능에서의 일상적 패턴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부모기로의 전이는 갓 결혼한 부부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족연구에서 부모기로의 전이는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중의 하나였다.

부모기로의 전이는 임신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첫자녀가 출생한지 약 1년쯤이 지난후면 끝나는 것이라고 하는데(Butler,1987), 지금까지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자녀 출산 이후로 집중되어 있고 임신기에 대한 연구는 소홀해 왔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임신기는 부모기 전이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자녀의 출현에 물리적 심리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결혼에서 확립된 패턴을 조정해야 하는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또한 자녀의 출산과 마찬가지로 임신만으로도 부부관계가 변화하고 그에 따른 대응과 적응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Snowden & Schott,1988). 따라서 부모기로의 전이 연구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부터가 아니라 임신기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신기간중의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Richardson,1983. Snowden & Schott 1988서재인용)를 보면, 임신한 부인 14명을 면접하였을때 이들이 부부관계를 '문제가 있는'편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은 임신기만을 연구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부모기로의 전이를 연구하기 위하여서는 임신기의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출산전과 비교하여 출산후의 부부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기 전이를 연구한 대부분의 국내연구(박숙자,1991;양명숙,1991;이숙현, 1988; 1990)들이 임신기의 부부관계에 별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는 첫번째 단계로서 임신기의 부부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관련연구 고찰

1. 관련개념

1) 결혼적응

Adams(1980)는 결혼적응이란 각 배우자와의 결혼관계에서 순응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혼적응에 관한 국내학자들의 정의를 보

면 이기숙(1984)은 부부가 갈등을 피하거나 해결해서 그 결혼에 만족하고 부부 상호간에 공통된 관심사와 활동등을 발달시킴으로써 결혼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한다고 느끼도록 적용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이숙현(1988)은 결혼 배우자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결혼생활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결혼적용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많이 알려져 사용되는 척도중의 하나가 Spanier의 2인적용 척도이다. Spanier(1976)는 결혼적용을 보는데는 2가지의 각기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첫째는 종단적인 연구와 같이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결혼적용을 가장 잘 연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서 상태보다는 과정으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과정이 아닌 상태의 질적 평가로서 결혼적용을 보는 방식으로서 이러한 방식을 취하면 연구자는 자료가 수집된 시기의 관계의 질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므로 연구는 상대적으로 단순해진다. 이에 대하여 Spanier는 2인적용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라기 보다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취하여, 적용이 질적인 영역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개념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①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2인간의 차이 ②대인적인 긴장과 개인적인 불안 ③ 2인관계 만족 ④ 2인관계 응집성 ⑤ 2인관계가 기능하는데 중요한 문제에 관한 일치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같은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부부간의 일치, 만족, 응집성, 애정표현 등 4개의 하위영역을 갖는 2인적용척도(Dyadic Adjustment Scale:DAS)를 개발하였다.

결혼적용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는 Spanier의 DAS이외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으나 DAS는 하위영역별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Spanier, 1976) 본 연구에서는 DAS를 이용하여 결혼적용을 측정하고자 한다.

2) 부모기

자녀의 임신으로 시작되는 부모기는 부부에게 있어 생물학적인 의미와 심리적인 의미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된다. 즉, 자녀의 입장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부모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성인은

부모기를 맞음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발달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부모기에 대하여 Rossi(1968, Bigner,1989)서 재인용)는 다른 역할과 구분되는 네가지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여성들이 남성보다 부모 역할에 대해 더 큰 문화적 압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둘째, 다른 성인의 사회적 역할과 비교해 본다면 부모 역할은 항상 자발적으로 가정되지는 않는다. 셋째, 부모 역할은 돌이킬 수 없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회적 역할과 비교하여 부모기에의 준비는 열악한 편이라는 점이다.

또한 LaRossa(1986)는 부모기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부모기는 사회적 재생산과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보호라는 요구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제도이다. 둘째, 부모행동도 사회화와 내면화의 산물이다. 셋째, 부모기가 개인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부모기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도 부모기 역할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호혜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살펴본다면 부모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면서 부모기는 준비되지 않은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고, 결혼한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 첫자녀 임신으로 인한 부부의 변화

임신으로 인한 변화는 부부의 경우에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여성의 경우, 임신기간이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 진다(Butler,1987). 첫번째 단계는 초기 단계로서 임신을 하면 약 50% 이상의 여성이 입덧을 경험하며 가벼운 두통이나 신체적 피로등을 느끼게 되고 성적 욕망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이시기는 호르몬의 변화와 연관되어 정서적 불안정이나 불안, 과민반응등의 정서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4개월쯤 지나면 부부 모두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호르몬도 다시 안정을 찾게 된다. 두번째 단계는 임신 4-8개월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이 기간에는 특별한 신체적인 증상은 없다. 단지 아기의 움직임 태동으로 느낄 수 있으며 남편과의 성역할

차이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임신 말기가 되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다시 생기고 태아의 성장으로 인하여 모체가 비대해져 신체적으로 불편을 느끼게 된다. 즉, 여성의 신체에 급격한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궁의 경우 비임신시에는 그 용적이 10ml이하이나, 임신시에는 태아, 태반 및 양수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용적으로 변하여 임신만기에는 평균 5리터, 최대 20리터 이상을 나타내어 비임신시에 비하여 500-1000배로 증가한다. 또한 임신중에는 유방의 변화가 현저하다. 분만 후에는 태반의 영양공급이 끊어짐으로 에스트로젠과 프로세스테론의 영향하에 모유로 영양을 줄 수 있도록 유방이 준비되는데 유방이 커지면서 압통이나 자통등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유방의 변화는 임신초기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임신기간중 평균 11Kg의 체중증가가 나타나는데 첫3개월에 1Kg, 중간 3개월과 마지막 3개월에 각각 5Kg씩 증가한다고 한다. 임신기간중 일어나는 이러한 여성의 생화학적, 생리적, 해부학적 적응은 대부분 수정이후 시작되어 임신기간중 유지되며 분만 및 수유후에는 임신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대한산부인과학회,1987).

남편의 경우도 부인의 임신과 무관한 것이 아닌데 자녀의 출산 전까지는 부인보다 오히려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으며 자녀의 앞으로의 경제적 요구에 대하여 부양자 역할에의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임신기의 부부관계는 다른 시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부인과 남편이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이것이 부부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부모기로의 전이라고 하여 부부를 함께 다루어서는 안되며 이들을 각기 분리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DAS를 이용하여 부부 각자의 임신기 부부간의 결혼적응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각 하위영역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3. 관련변수 고찰

1) 역할전이의 준비기간

예측할 수 있거나 준비되는 역할전이는 상처를 주지 않으며, 역할 과중이 생길때 개인은 역할전이의 지연을 통하여 역할요구의 과부담을 피할 수 있다(Hagestad & Neugarten,1985)고 하므로 역할전이에 대한 준비 여부가 임신기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Nydegger의 연구(1973, Hagestad & Neugarten,1985서 재인용)에서도 남편의 경우 이른 부모기로의 전이는 긴장을 가져오지만 지연된 전이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자녀를 낳는것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하나 부부의 적응기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자녀를 낳는 시기를 선택하고 충분한 부부적응기간을 거친 사람들이 더 낮은 긴장수준을 보일것이라고 예측이 된다. 따라서 역할전이의 준비라는 면에서 결혼전의 교체기간과 결혼에서부터 부인의 임신까지의 결혼지속기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부인의 취업

Mckim(1987)은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비교하여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훨씬 많은 어려움을 보고하였다고 하였다. 이 숙현의 연구(1990)에서도 면접을 통해 자녀 출생후에도 취업을 지속하는 이유와 복직이 가능하다면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할 것인지를 질문하여 취업의 영향을 보고 있으나, 출산이 끝난 이후의 여성을 대상으로 회상법을 사용하여 부인의 취업이 임신기의 결혼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미흡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신중인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결혼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인구통계적 변수

임신기의 결혼적응은 부부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먼저 국내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임신기의 결혼만족을 살펴본 양명숙의 연구(1991)에서는 남편의 결혼만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신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부부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편보다 부인의 결혼만족이나 결혼적용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Waldron & Routh,1981; Belsky, Spanier & Rovine,1983)에서 보면, 임신기 부인의 결혼적용 점수가 남편의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의 연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기의 결혼적용이 부부간에 어떠한가를 규명하고,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연구의 경우,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인구학적 변수가 결혼적용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김득성, 1987; 이 숙현, 1988)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학적 변수별 분석은 배제하기로 한다¹⁾. 더구나 이 연구에서는 부모기로의 전이를 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첫 임신인 경우로 통제하였으므로 조사대상자의 연령도 유사하게 한정될 것이다.

III. 연구문제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용과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첫자녀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용과 결혼적용 하위영역(만족, 결합, 일치, 애정표현)별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첫자녀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용과 결혼적용 하위영역(만족, 결합, 일치, 애정표현)별 특성은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첫자녀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용과 결혼적용 하위영역(만족, 결합, 일치, 애정표현)별 특성은 관련변수(역할전이의 준비기간, 부인의 취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IV. 조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결혼후 첫자녀를 임신중인 부부이다. 분석대상이 된 98쌍 196명의 일반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자녀를 임신중인 부인의 연령은 23세부터 35세 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7세였다. 남편의 연령은 25세부터 35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32.3세로 나타났다. 표집대상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적은 수의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력과 소득이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조사대상이 된 부인의 경우는 73.7%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남편의 경우는 82.8%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임신기간에 따른 분포를 보면 4개월 미만인 19.4%인 19쌍이었고, 5-7개월이 39쌍인 39.9%, 그리고 8개월 이상인 경우가 37쌍인 37.8%였다.

전체 부부의 76.8%인 76쌍은 부부만 동거하는 핵가족의 형태였으며 나머지 대상자중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15.2%인 15쌍,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1쌍뿐 이었다. 이처럼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은 후에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 누구냐는 질문에서는 시어머니(18명)나 친정어머니(20명)가 별 차이가 없어 자녀 양육기의 부부에 있어서는 친정어머니와 더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혼 후 5년 이내의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상원, 1993)에서도 신혼부부들이 부인의 부모와 더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부모기로의 전이단계에서 실제로는 부인의 부모에게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1) 부인의 교육수준을 고졸과 대졸로 나누어 t검정한 결과 부부의 전반적인 결혼적용과 결혼적용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편의 소득수준을 100만원 이하와 이상으로 나누어 t검정한 결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44명(44.4%)이었으며 나머지 53명(54.6%)는 전업주부이었다. 취업을 한 경우에 부인의 평균소득은 75만원이었고 남편의 경우는 평균소득이 118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비교적 고학력, 고소득자 라고 보여진다.

조사대상자들의 결혼 유형을 보면 65쌍은 연애혼(65.7%)이었으며 중매혼의 경우가 6쌍(6.1%) 그리고 중매반 연애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5쌍(25.3%)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의 경우 연애혼이 우세한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 대상부부의 결혼전 교제기간은 1개월부터 8년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 31개월을 교제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은 비교적 길게 나타났다으나 1년이하의 교제기간을 거친 부부가 40%였으므로 오랜 교제기간을 거친 부부로 인하여 전반적인 평균의 상승을 불러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측정도구의 작성

본 연구에서는 결혼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Spanier의 2인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결혼적응이란 1. 문제되는 사항들에 대한 부부간의 차이 2. 부부간의 긴장과 불안감 3. 부부간의 만족도 4. 부부간의 결합도 5. 중요한 문제에 대한 부부간의 일치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과정이다.

DAS는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진 결혼적응 척도로서 부부의 만족에 관한 문항이 10문항, 응집 5문항, 일치 13문항, 애정표현 4문항으로 4개 하위영역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척도는 김득성(1987)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그대로 적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부인의 결혼적응의 경우 $\alpha=.85$ 이었으며, 남편의 결혼적응은 $\alpha=.81$ 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르는 부부적응 변

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출산을 전후한 결혼적응 변화를 보고자 하는 연구의 일부로 실시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직장과 산부인과의 협조를 얻어 결혼 후 첫자녀를 임신중인 부부 98쌍, 196명을 대상으로 1991년 3월부터 6월에 걸쳐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직장으로 남편을 통해 연구대상을 접근한 경우는 부부 각각의 설문지를 보내서 작성하게 한 후 별도의 봉투에 넣어 회수하였으며 산부인과의 협조를 통한 자료수집은 산부인과 병원에 찾아온 첫임신인 부인을 상대로 간호사의 소개를 받은후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남편의 결혼적응 척도는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질문지의 총배부는 300부를 배부하였고, 이중 부인 114명과 남편 98명이 응답하였으나 회수된 질문지중 남편과 함께 응답하지 않은 부인용 16부를 제외하고 총 98쌍(196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4. 자료분석방법

각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하여서 평균과 표준편차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수준과 각 하위영역의 수준을 파악하고 부부간의 차이와 하위영역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쌍체 t검증 및 t검증을 하였으며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1.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응과 각 하위영역별 결혼적응

첫자녀를 임신중인 부부의 전반적인 결혼적응과 하위영역별 수준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전반적인 부부의 결혼적응은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각 하위영역에서의 점수도 대체로 중간 이상의 값을 상회하고 있어, 부부관계를 연구할때 대체로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유영주, 1989; 이미숙, 1990)들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하위영역별 점수들은 DAS를 이용한 다른 연구(조은숙, 199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

이 결혼후 첫자녀를 임신중인 부부이므로 상대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신혼기의 부부(이상원, 1993)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신으로 인하여 변화가 있다면 임신기간에 따라서 그 차이가 드러날 터인데 임신기간에 따라서 아무런 차이가 없이 변화를 보이지 않으므로²⁾ 임신으로 인한 변화는 크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같은 경향은 Richardson의 연구(Richardson, 1983; Snowden & Schott, 1988에서 재인용)와는 다른 결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임신기 그 자체로 인하여 결혼적용이 변화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임신기 결혼적용과 하위영역별 부부간 차이

위의 <표 1>에는 임신기 부부의 전반적인 결혼적용 이외에도 부부간의 전반적인 결혼적용점수와 각 하위영역별 점수를 쌍체 t검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전반적인 결혼적용에서 부부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편의 결혼적용은 108.27로 부인의 결혼적용 105.7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t=-2.80, p<.01$). 이는 임신기 부부의 결혼만족이 남편의 경우에 더 높다는 양명숙의 연구

(1991)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결혼적용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볼때 만족 영역에서 남편의 점수가 더 높다는 것($t=-3.36, p<.01$)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임신기의 경우 부인의 결혼적용이 더 높다는 연구(Belsky, Spanier & Rovine, 1983)나 남편의 경우에 긴장이 더 크다는 Butler의 주장(Butler, 1987)과는 다른 것인데 이는 한국의 경우는 임신기가 특별한 시기로서 여겨지지 않고 다른 시기처럼 모두 일관되게 남편의 결혼적용이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며, 임신만으로는 남편들이 부인의 임신으로 인하여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적용의 만족영역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관련 변수에 따른 분석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결혼적용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되며, 각기 분리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3. 관련변수에 따른 임신기의 결혼적용

1) 결혼지속기간

조사대상 부부의 결혼부터 임신까지의 결혼지속

<표1>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용 경향

영역	부부	평균 (범위)	N	표준편차	쌍체 t
전반적 결혼적용	부인	105.78(0-151)	97	11.89	-2.80**
	남편	108.27(0-151)	98	9.52	
만족	부인	33.43(0- 50)	98	3.95	-3.36**
	남편	34.60(0- 50)	96	3.19	
일치	부인	47.80(0- 65)	97	6.22	-1.58
	남편	48.60(0- 65)	98	5.04	
응답	부인	16.59(0- 24)	98	3.29	-1.24
	남편	16.98(0- 24)	98	3.41	
애정표현	부인	7.92(0- 12)	98	1.38	-1.07
	남편	8.08(0- 12)	98	1.32	

* $p<.05$ ** $p<.01$

2) 부인의 임신기간을 5개월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부의 전반적인 결혼적용과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간은 평균 8.7개월로 나타나 비교적 짧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 응답대상자 98쌍 중에서 혼전임신이 5쌍으로 7.2%였으며, 결혼과 동시에 임신한 경우도 9쌍으로 16.3%에 달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52%가 결혼후 5개월 이내에 임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후 1년이 지나고 나면 응답자의 73.5%가 자녀를 임신하였다. 이는 우리의 경우 남녀가 결혼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2인간의 적응을 거쳐 바로 3인이 한 가족이 되는 상황으로 접어 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결혼한 며느리의 중요한 의무는 자녀를 낳는 것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그러한 이유에서만은 아닌듯 하다. 만약 그렇다면 연령이 많은 부인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압력을 더 많이 받을 터인데 오히려 결혼지속기간과 부인의 연령과의 상관은 .41($p<.001$)로 나타나 연령이 많은 여성일수록 더 늦게 임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는 연령이 많은 부인들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숙고한다고 간접적으로 해석될 것이다. 연령이 낮은 부인일수록 자녀를 갖는 것에 관하여 별다른 고려 없이 바로 임신한다고 보여진다.

결혼이라고 하는것이 전혀 다른 문화와 습관을 지닌 두 남녀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때 낯선 2인간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유영주등(1990:134-138)도 신혼기 부부의 발달과업으로 거주지나 재정문제등부터 시작하여 역할이나 성관계, 친척이나 동료등과의 관계등 9가지의 발달과업을 제시하고 있어 결혼초기는 2인간의 적응이 필요한 시기임을 밝히고 있다. 즉, 결혼과 동시에 낯선 2인이 완전한 부부로 갑작스럽게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들을 보면 1년 이내에 70% 이상이 임신을 함으로써 2인의 적응기간 면에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표 2>에서는 응답자들이 과반수이상 임신하게 되는 시기인 결혼 5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5개월 전에 임신하는 부부와 5개월 이후에 임신하게 된 부부의 총체적인 결혼만족과 각 하위영역에서의 점수를 t검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2>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임신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결혼적응에는 부부모두 차이가 없으나 결혼후 5개월 이후에 임신한 부부가 5개월 이내에 임신한 경우보다 하위 영역중 일치 영역에서 부인의 일치($t=-2.19, p<.05$)와 남편의 일치($t=-2.13, p<.05$)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하고 바로 자녀를 갖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을 확보한 이후에 자녀를 갖는 것이 부부의 일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혼전임신을 한 경우가 7.3%에 지나지 않아 이들을 따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혼전임신이 자녀를 가짐으로서 생기는 위기와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Rusell, 1974)가 지적하는 것처럼 혼전임신이 부부의 결혼적응에 더 부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러한 혼전임신한 부부에 관한 결혼적응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결혼지속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은 임신동기화도 직접 연된되는 문제이다. 임신에 관한 의사결정이 임신기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Snowden & Schott, 1988; Rusell, 1974) 결혼후 임신까지의 결혼지속기간이 너무 짧음으로서 임신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여유조차 갖지 못한다고 보인다.

2) 결혼전 교체기간

부모기로의 역할전이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조사 대상자의 결혼전 교체기간이 결혼적응에 있어 차이를 가져올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3>에는 결혼전 교체기간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하와 1년 이상으로 분류한 경우의 전반적인 결혼적응과 각 하위영역에서의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3>에는 결혼전의 교체기간에 따른 전반적 결혼적응과 하위영역별 차이가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부인의 경우는 교체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없으나 남편의 경우는 전반적 결혼적응과 만족영역 그리고 응집영역에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역할전이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예측했던 바와는 달리 남편의 경우 오히려 결혼

〈표 2〉 임신까지의 결혼지속기간에 따른 임신한 부부의 결혼적응

영역			N	평균	표준편차	t값
전반적 결혼적응	부인	5개월이전 임신	50	103.54	12.93	-1.87
		5개월이후 임신	46	108.04	10.35	
	남편	5개월이전 임신	51	107.63	10.17	-.77
		5개월이후 임신	46	109.13	8.83	
만족	부인	5개월이전 임신	51	32.94	4.38	-1.29
		5개월이후 임신	46	33.98	3.44	
	남편	5개월이전 임신	51	34.76	3.49	.41
		5개월이후 임신	46	34.50	2.85	
일치	부인	5개월이전 임신	50	46.44	6.93	-2.19*
		5개월이후 임신	46	49.13	4.96	
	남편	5개월이전 임신	51	47.59	5.55	-2.13*
		5개월이후 임신	46	49.74	4.23	
응집	부인	5개월이전 임신	51	16.39	3.32	-.61
		5개월이후 임신	46	16.80	3.31	
	남편	5개월이전 임신	51	17.14	3.38	.38
		5개월이후 임신	46	16.87	3.49	
애정표현	부인	5개월이전 임신	51	7.71	1.24	-1.52
		5개월이후 임신	46	8.13	1.52	
	남편	5개월이전 임신	51	8.14	1.28	.42
		5개월이후 임신	46	8.02	1.41	

* p < .05 ** p < .01

〈표 3〉 결혼전 교제기간에 따른 부부의 결혼적응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t값
전반적인 결혼적응	부인	1년이하교제	38	106.55	11.56	.63
		1년이상교제	57	104.98	12.26	
	남편	1년이하교제	38	111.39	7.91	2.64*
		1년이상교제	58	106.26	10.14	
만족	부인	1년이하교제	38	33.82	3.91	.90
		1년이상교제	58	33.07	4.01	
	남편	1년이하교제	38	35.42	2.51	2.25*
		1년이상교제	58	34.03	3.52	
일치	부인	1년이하교제	38	47.63	6.49	-.12
		1년이상교제	57	47.79	6.16	
	남편	1년이하교제	38	49.63	4.82	1.63
		1년이상교제	58	47.91	5.18	
응집	부인	1년이하교제	38	17.13	2.99	1.35
		1년이상교제	58	16.21	3.47	
	남편	1년이하교제	38	17.97	3.01	2.27*
		1년이상교제	58	16.30	3.58	
애정표현	부인	1년이하교제	38	7.97	1.24	.38
		1년이상교제	58	7.86	1.49	
	남편	1년이하교제	38	8.37	1.30	1.59
		1년이상교제	58	7.93	1.30	

* p < .05, ** p < .01

전 교제기간이 1년 이하의 남편들이 전반적 결혼만족이 더 높으며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만족 그리고 응집에서 결혼전의 교제기간이 1년 이상이었던 남편들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첫자녀를 임신중인 부부에 한하여 특별히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현상인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첫자녀를 임신중인 부부에 한정한 현상이라면 교제기간이 길었던 부부의 경우 높은 결혼적응을 보이다가 자녀의 임신으로 인하여 더 많은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첫자녀 임신 부부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결혼적응이나 부인에 대한 태도등에서 또 다른 측면이 나타난 것이므로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3) 부인의 취업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에 비하여 임신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사대상 부인을 취업과 비취업으로 구분하여 전반적 결혼적응과 각 하위영역별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아래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4>를 살펴보면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한 경우보다 남편의 총체적인 결혼적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의 Mackim의 연구(198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른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그러한 결과가 낮은 수준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업한 부인의 경우라도 임신기간중에는 부모기로의 전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이 되었던 대상중에는 임신기

<표4>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부의 결혼적응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t값
전반적 결혼적응	부인	취업	44	104.77	13.66	-.68
		비취업	52	106.44	10.27	
	남편	취업	44	106.14	9.96	-2.05*
		비취업	53	110.08	8.94	
만족	부인	취업	44	32.82	4.73	-1.26
		비취업	53	33.87	3.14	
	남편	취업	44	34.07	3.73	-1.39
		비취업	53	35.00	2.65	
일치	부인	취업	44	47.41	7.42	-.52
		비취업	52	48.09	5.11	
	남편	취업	44	47.82	5.41	-1.43
		비취업	53	49.28	4.7	
응집	부인	취업	44	16.50	3.43	-.15
		비취업	53	16.60	3.20	
	남편	취업	44	16.36	3.39	-1.65
		비취업	53	17.51	3.40	
애정표현	부인	취업	44	8.05	1.33	.89
		비취업	53	7.79	1.43	
	남편	취업	44	7.89	1.08	-1.53
		비취업	53	8.28	1.47	

* P< .05, 1 ** p< .01

간이 3개월부터 10개월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므로 임신에서 오는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이도 많을 것이다. 또한 부모기로의 전이가 임신기보다는 첫자녀의 출생이후부터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전반적인 점수의 경향으로 미루어볼때 취업한 부인들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VI. 요약 및 결론

부부의 결합후 처음으로 맞는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부모기로의 전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과정의 첫번째 단계로서 결혼후 첫번째 자녀를 임신중인 부부 98쌍을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결혼적용과 각 하위영역에서의 결혼적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쌍체 t검증을 통하여 부부간에 총체적인 결혼적용과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역할전이의 준비와 부인의 취업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가를 t검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첫째, 우리에게 있어 첫자녀 임신은 부부적용에 문제를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부부의 전반적인 결혼적용과 각 하위영역에서의 결혼적용은 대체로 약간 높은 편이며, 부인보다 남편이 더 높은 결혼적용 점수를 보이고 있어 부부관계를 연구한 다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적용의 하위영역인 일치영역에서 부부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앞으로 결혼적용에 관한 연구를 할때는 어느 일방만을 조사하여 부부의 결혼적용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부모로서의 역할준비기간은 임신기의 결혼적용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부터 임신까지의 결혼지속기간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짧은 지속기간을 나타내었지만, 짧은 과정중에서도 결혼적용과 하위영역에서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이 과반수 이상 임신하게 되는 결혼 후 5개월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부 모두 일치 영역

에서 결혼지속기간이 긴 경우에 더 높은 일치를 보여주어 결혼지속기간이 부부의 결혼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역할 준비의 측면에서 볼때 부부가 2인간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만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보는다면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때는 우선 부부간의 적응기간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시기는 자녀를 갖지 않고 부부만이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할전이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함께 살펴본 결혼 전 교체기간은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오히려 교체기간이 긴 경우에 남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고 후속 연구도 더 요구된다고 보이는 부분이다. 즉, 부인의 경우는 결혼전 교체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남편의 경우는 일치, 애정표현 영역을 제외한 총체적인 결혼적용과 만족 그리고 응집부분에서 모두 교체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만약 임신기 특유의 현상이라면 교체기간이 긴 경우에 임신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특정한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면 남성들의 사랑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좀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결과에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결혼전 교체기간과 결혼에서 임신까지의 결혼지속기간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전의 교체기간이 길다고 빨리 임신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다. 단지 부인의 연령과 결혼지속기간이 유의미한 상관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연령이 높은 부인들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좀 더 시기를 고려한다고 보여진다.

세번째,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남편의 전반적인 결혼적용이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인의 취업으로 인하여 시간이나 보살핌등에서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남편에게 영향

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의 결과와 연관되어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부인이 취업한 경우 실제로 과중한 부담을 안게되는 입장은 부인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의 결혼적용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남성들의 결혼에 관한 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에 관한 이데올로기 연구(권오주, 1989)를 보면, 남녀 모두에게 있어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성차별 의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이 여성의 일이라고 여기기에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준비하기 보다는 여성의 역할인 출산으로 인한 자신의 부담을 더 고려하고 있지 않는가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한 해석을 이 연구 한편으로 내리기는 미흡하므로 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부모가 됨으로써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종단적인 연구의 제 1단계로서 임신기의 결혼적응 양상이 규명되었다. 따라서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인 첫자녀 임신기에서의 결혼적응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가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첫자녀를 임신중인 특정한 시기의 부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표본 추출에 어려움으로 우편회수등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부관계가 원만한 부부만이 추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편용의 질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16경우는 남편의 비협조를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더 낮은 결혼적응을 보일 수 있는데 분석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두번째, 역시 표본 추출의 어려움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적은 수의 표본을 가지고 분석함으로써 어느 정도 동질적인 대상을 표집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교육수준도 높고 소득수준도 높은 부부가 대다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부부를 포함하여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첫자녀

를 임신한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적응을 살펴봄으로써 횡단적 연구자료와 회상법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부모기로의 전이과정중의 부부관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앞으로의 부모기 교육등의 분야에서 실증자료로 이용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권오주. 1989.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김득성. 1987. "Spanier의 결혼적응척도에 관한 연구(2)" 「부산대 가정대 연구보고」 13:1-24.
- 3) 대한산부인과학회. 1987. 산과학.
- 4) 박숙자. 1991. "첫자녀 출생과 부부관계의 변화"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사회사 연구회편: 141-180.
- 5) 양명숙. 1991. "부모전환기에서의 결혼만족도 연구" 「가족학논집」3호:31-54.
- 6) 유영주. 1989. "부부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7권 2호:212-216.
- 7) 유영주, 이순형, 홍숙자. 1990. 「가족발달학」 서울: 교문사.
- 8) 이기숙. 1984.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적응의 변화" 「부산여대논문집」 17:601-617.
- 9) 이미숙. 1990. "한국에서의 결혼만족 연구에 대한 고찰 및 평가" 「성심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0권 1호:27-71.
- 10) 이상원. 1993. "결혼초기 부부의 부모와의 유대 및 결혼만족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1) 이숙현. 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 논집」 2:11-27.
- 12) 이숙현. 1988. "한국 근로자 계층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2:161-181.
- 13) 조은숙. 1990. "남편의 직무관련변수와 부인의 결혼적응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Adams, B.N. 1980.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3rd) Rand Mc. 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15) Belsky J. 1984. "Social- network contact, family suppor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455-462.
- 16) Belsky J., Spanier G.B. & Rovine M. 1983.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567-577.
- 17) Butler M.H. 1987. "Effects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on the marital subsystem of the family." *Family Perspective* 21:147-162.
- 18) LaRossa Ralph. 1986. *Becoming a parenthood* Family Studies Test Series3. Sage Publication: Beverly Hills London New Delhi.
- 19) Mackim, M.K. 1987. "Transition to what? New Parent's problems in the first Year" *Familt Relations* 36:22-25.
- 20) Hagestad G.O. & Neugarten B.L. 1985 "Age and the life course" In R.H. Binstock and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tudies* (2nd):35-61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21) Neugarten B.L. & Hagestad G.O. 1976. "Age and the life course" Binstock and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tudies* 1st: 33-55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22) Russell C.S., 1974. "Trnition to parenthood": Problems and gratific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294-301.
- 23) Snowden L.R., T.L. Schott, S.J. Awah & J. Gills-Knox. 1988. "Marital satisfaction in pregnancy: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325-333.
- 24) Spanier G. 1976. "Measuring dyadic adustment: New scales for accessing the quality of marri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5-38.
- 25) Bigner J.J. 1989. *Parent-Child Relations* (3rd.)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26) Waldron, H & R. Donald K. 1981. "The Effect the first child on the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785-788.
- 27) Wallace H. & D.K. Routh. 1981. "The effect of the first child on the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785-788.